

“우리 모두 동일한 존재다” 주장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10

불교에 영향을 미친 사상 ③-베단타학파 ㉔

베단타학파의 라마누자(Ramanuja)는 해방된 영혼은 죽을 뒤에 순수이식으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이들은 이슬방울이 바다물에 합류하듯 개인의 영혼은 신성(神性)에 흡수된다고 말한다. 에드윈 아놀드 경(Sir Edwin Arnold)은 자신의 시(詩) ‘아시아의 빛’ 글 귀절을 ‘이슬방울은 빛나는 바다속에 소멸한다’고 썼다.

개인 영혼 神性에 흡수

베단타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다.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여러 모습을 꿈꾸지만 실제로는 결코 스스로를 벗어나는 일이 없는 것처럼, 혹은 마법사가 허황되게 변신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스스로

권 군대속에서 “스승과 부친과 아들과 손자를 그리고 그의 친척들”을 보고 칼을 거둘 결심을 한다. 그때 마부로 화신하여 아르주나의 마차를 몰던 크리슈나 신이 아르주나에게 현신하여 전쟁이란 한갓 환영이란 것을 일깨운다. “신자를 위해서도 죽은자를 위해서도, 지혜로운 자는 슬퍼하지 않는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다. 너도 그랬고, 저 왕자들도 그랬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없을 것이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은 이 사람에게 의해 죽는다고 생각하는 자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다. 어느 누구도 죽지 않고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다. 육신의 소유주가 소년, 청년, 노년기를 거쳐



◇ 전장에서 나간 아르주나는 적군들이 모두 자신의 친척임을 알고 무기를 놓고 주저한다. 크리슈나 신은 아르주나의 마부로 현신하여 전쟁은 한갓 환영임을 일깨운다. 이 그림은 (비가바드 기타)의 이같은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脫근대주의 사상가들에게 자아탐구 방법 제시

는 항상 마법사인 것처럼, 그렇게 세계는 브라만에서 나오지만 브라만 자신의 본질이 변화하는 법은 없다.’ 13세기 페르시아의 범신론자 할랄 루미(Jalal-Uddin Rumi)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그물을 던지는 자요 낚이는 고기이며, 거울이면서 비치는 영상이며, 합성이며 메아리이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글을 썼다. “고문하는 자와 고문받는 자는 동일인이다. 고문하는 자는 자기가 고통과는 상관없다고 믿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고문받는 자는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믿지만 그것 역시 착각이다.” 에머슨의 시 ‘브라만’은 이렇게 시작한다.

“만일 붉은 암살자가 죽인다고 생각하고 피살자는 암살 당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모르고 있다. 내가 때로는 이 길을 때로는 저 길을 걷는다는 것을 또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 “내에서 벗어나려는 자는 잘못 생각한 것이다. 그들이 내에서 벗어나 날려고 할때 그 날개가 바로 나다. 나는 의심하는 자이며 그 의심이다. 나는 브라만이 부르는 노래이다.” 보들레르도 “나는 때리는 손이 맞는 팔이다”고 말했다. (비가바드 기타)에서 아르주나는 전쟁에 직면한 절박한 순간에 적군들이 모두 친척임을 상기하며 활을 놓고 땅에 털석 주저앉는다. 그는 양

“나는 그물을 던지는 자요 낚이는 고기이며 거울이면서 비치는 영상이고 합성이며 메아리다”

가듯이 죽은 후에도 다른 육신을 얻게 될 것이다. 현명한 자는 육신의 죽음에 미혹되지 않는다. 칼도 그를 죽일 수 없고, 불도 그를 태울 수 없으며, 물도 그를 적실 수 없으며, 바람도 그를 말릴 수 없다.” 크리슈나는 더불어 이렇게 덧붙인다. “전쟁터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크리슈나의 이런 말은 플로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시킨다. “이런 연극에서 죽는 배우는 다음 연극에서 역할을 바꿔 다시 출연한다. 연극에서 죽는 것은 진짜 죽은 것이 아니다. 죽음은 마치 연극배우들이 역할을 바꾸는 것처럼 물을 바꾸는 것이다.”

인도 육과철학 중 산기아학파와 베단타학파를 소개한 보르헤스의 글은 특히 이 두 학파의 가르침의 핵심인 ‘자아(自我)의 아이덴티티(正體性)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두 학파가 설파한 정체성의 문제에서 보르헤스가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적 주제(modern ego)의 문제는 데카르트에서 해결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사상계에서 가장 핵심적 주제가 되어 왔다. 보르헤스는 그의 작품

을 통하여 이 근대적 주제에 대한 회의를 표시했는데 그 모티브를 산기아학파와 베단타학파의 교설에서 빌어왔다.

無我사상 근간 이뤄

예를 들어, 산기아학파는 배우로서의 자아와 관객으로서의 자아를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즉 우리는 배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그 배우를 바라보는 관객으로서의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자각함으로써 보다 큰 대아(大我)와의 합일(合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보르헤스는 그의 짧은 평론 <보르헤스와 나>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였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 ‘보르헤스’는 배우에 불과한 것이다. 반잡한 세상사는 (배우)보르헤스의 몫이다. (배우)보르헤스에 관해서는 우연함을 통해 소식을 듣고, 문인 인정사전에서 그의 이름과 이력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보르헤스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유명작가 보르헤스는 ‘나’가 아니고 ‘그’이다. 반면 ‘나’는 개인적이고 내면적인(관객인) 존재이다. ‘나’는 끊임없이 ‘보르헤스’에게서 도망치지만

그는 끈질기게 ‘나’를 쫓아오고, 세상은 나를 ‘보르헤스’로 기억한다. 이렇게 내생은 도망자의 생이었다. 그런데 보르헤스와 나 우리 둘 중 누가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편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조망하는 브라만의 차원에서는 암살자와 피살자가 모두 동일인이라는 생각을 차용하여 보르헤스는 그의 단편소설 <신학자들>을 썼다. 이 소설에서 신학적 입장이 다른 두 신학자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다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 화형(火刑)에 처하게 한다. 그러나 가해자의 입장에 있었던 신학자도 후일 죽게 되는데, 그는 사후(死後) 신성의 마음 속에서는 정통파와 이단자, 고발자와 희생자, 증오하는 자와 증오받는 자 모두 동일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내용이다.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무아(無我)에 이른다. 근대성(modernity)에 대한 비판과 반성은 근대적 주제에 대한 검토로 초점이 모아지고 많은 탈(脫)근대주의 사상가들에 의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불교의 무아사상이다. 그리고 서구에서 이점을 누구보다 먼저 지적한 것이 보르헤스이다. ‘탈근대의 창시자’라는 보르헤스의 별명은 이런 연유로 붙여진 것이다.

번역 : 김 흥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김 종 상
《불교아동문학가》



밝빛 완연한 교정에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가득하다. 저 천진한 아이들의 가슴에는 무슨 꽃이 봄날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을까. 오래 교정을 드나든 교사로 아동문학을 하는 작가로서의 오늘 내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어린이들을 통해 내 삶을 되돌아 본다. 저들은 모두가 부처님이다. 우리 가족은 도봉산 천축사를 다니는데 그 절의 부처님 만공이나 아이들은 나를 편안하게 해 준다. 절에 가서 예배하고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고 그들의 환한 얼굴을 보는 것이 어느덧 내 삶의 중요한 즐거움으로 자라 와 있음을 느낀다. 이것도 하나의 수행일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 역센 안동 사투리의 아버지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 들은 그 설화들이 내 삶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시절 내가 지란 곳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마을에서 뒷산을 넘으면 소백산 끝줄기의 하나인 학가산(鶴巖山)이 있다. 학이 날개를 펴고 승천하

게웃을 필력이면서 구름 사이를 날아내리는 천녀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스스로 황홀해지곤 했다. 그러나 끝내 그 동굴에는 가보지 못했다. 국사봉에는 여러번 찾지만 그 동굴까지는 길이 험하다고 어른들이 못가게 했다. 내가 어른이 된 뒤에 알아보니, 아버지가 능지대사라고 했던 그 절설속의 스님은 능인대사였다. 그 기록은 안동의 옛 역사를 적어놓은 <영가지(永嘉誌)>에 있었다. 바위굴의 이름도 능인대사가 살았다 하여 능인굴이라고 했다. 능인대사는 신라의 대덕(大德)으로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이 굴에 와서 숨어 살았다고 했다.

능인대사는 신공술이 뛰어나 끼니때가 되면 주술을 적은 종이를 바람에 날렸다고 한다. 그러면, 금방 천녀처럼 예쁜 여인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글을 보여줄까”

동심은 모두 부처님... 나를 편안하게 하는 대상

는 모습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다. 이 산의 최고봉은 큰 바위덩이로 우뚝 선 국사봉(國師峰)인데, 이 국사봉에서 동편 능선을 따라 30미터 가량 내려가면 깎아지른 절벽 아래 커다란 동굴이 있다. 사람 심여 명이 들어왔을 만한 넓이의 동굴 안쪽에는 샘이 있어 시원한 물이 그대로 감로수(甘露水)라고 했다.



구름을 타고 날아와서 산해진미가 가득한 밤상을 내놓는다고 했다. 이런 능인대사의 소문을 듣고 의성조사 밑에서 능인대사와 함께 공부하던 부석사 스님들이 찾아왔으나 대사는 그것을 미리 알고 구름 밖으로 떠나버렸다.

아버지는 농사일에 바쁘셨기 때문에 집에서 농사에 관한 일 외에는 별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절에 갈 때면 능인대사가 이기도 해주셨고, 공홍사 응진전에서 부처님께 절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참으로 큰 자람이었고 즐거움이었다.

또 국사봉 남쪽 기슭에는 애련사가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신라때 세워졌다는 공홍사가 있다. 공홍사는 우리 마을에서 산길로 심여리밖에 안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많이 다녔다. 아버지는 절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이따금 마을 사람들과 같이 공홍사에 갈 때면 학가산에 있는 동굴에 대한 전설이며 애련사, 공홍사의 유래를 이야기해 주셨다.

“아주 먼 옛날 신라적 이바구지, 능지대사라는 스님이 있었지라. 능지대사는 이상한 술법을 배와 가주고 맹산대천을 찾아 나섰거던. 그래, 이 학가산에 와보니 큰 굴이 있는게라. 용자리 여계가 좋겠다며 짐생매치러 굴속에서 살았지라.”

아버지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번 되풀이해 주셨지만 그것은 들을수록 새로운 감동으로 내 가슴에 젖어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 바위동굴을 예뻐한 아름다운 봉우리들과 바위 언덕이며, 능지대사의 부름을 받고 고운 날

에 관한 일 외에는 별로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절에 갈 때면 능인대사가 이기도 해주셨고, 공홍사 응진전에서 부처님께 절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참으로 큰 자람이었고 즐거움이었다. 부처님이 나신 사월 초파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애련사 옆의 덕진굴로 모여 들기도 했다. 사람들은 모두 바위 밑에 촛불을 켜고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부처님에게 하듯이 불공을 드렸다. 어머니는 초파일뿐 아니라 집안에 조그만 꼭짓거리만 생겨도 그곳으로 찾아가서 바위 앞에 촛불을 켜고 부처님께 하듯이 절을 했다. 어머니는 수없이 절을 하고는 두손을 모은채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랜 시간을 기도했다.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한번도 하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지나가면 그림과 아쉬운 법이지만 나는 어린날 아버지가 들은 능인대사 이야기며 어머니를 따라 덕진굴에 가던 일을 떠올리며 그때를 그리워한다.

성야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에서 일년에 드실 때 그의 수재자인 아난다가 호느끼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짐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게 일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음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와 디프 보하바(appa deepo bhava) —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문 중에서

42장경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평소와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능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그대의 모든 돈, 모든 보석, 그대의 모든 은성 전고물, ‘나는 조약돌로 본다.’고 붓다는 말한다. 그대는 삶의 바닷가에서 갖가지 조약돌을 모으며 놓고 있는 어린아이이다. 물론 그것들은 아름답게 보인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해변의 조약돌일 뿐이다. 그대가 그것들을 모으고 있는 사이에 삶은 그대 손에서 빠져 나와 미끄러져 간다. 그대는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다. 이 기회를 조약돌을 모으는 것으로 망쳐 버려서는 안 된다. —본문 중에서

“내가 도를 지겨운 지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무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한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오소 라즈니쉬 경위 / 황광우 이경숙 옮김
신국문 진경원 / 각권 7,500원